

미용·피부건강 개선 초점 ... '메디컬 에스테틱' 공략 본격화

제약·바이오, 사업 다각화 경쟁 동국제약 스킨부스터 등 시장 공략 사페론과 면역복합체 억제제 개발 시지바이오 글로벌 수출 국가 확장 홈케어 시장 공략 소비자 편의성 ↑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올해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최근 새로운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으로 스킨부스터 '디하이브'와 창상피복제 '마데카MD 크림·로션'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 동국제약은 미용, 피부 건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킨부스터 '디하이브'는 인체지방 세포배양액, 병풍추출물, 락토페린 등의 성분을 활용해 피부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이 동국제약 측의 설명이다. '마데카MD 크림·로션'의 경우, 1도 화상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 장벽



동국제약 스킨부스터 '디하이브'

/동국제약

이 손상된 부위에서 유효한 기능을 갖췄다.

동국제약은 앞서 지난 5월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역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사페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은 사페론이 연구 중인 면역복합체 억제제를 이용해 만성 염증과 민감성 피부에 쓰이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또 동국제약은 보건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항노화 및 노화 관련 주사용 의료기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동국제약은 염증반응이 유발하는 노화를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징'에 집중해 해당 시장의 성장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은 전 세계 인플라메이징 시장 규모는 현재 8739억 원이며, 오는 2030년에는 1조 7167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지난 3월 제이 에스케이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에스테틱 시장에서 전문가용 미용기기 '마데카더마 파인올샷'을 내놨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마데카더마 파인올샷'은 저

통증 집중초음파 기술이 적용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빠른 피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동국제약은 13년 만에 필러 제품인 히알루론산 필러 '케이블린'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이 독자적인 필러 제조 기술력으로 안전성, 안정성, 조형성, 주입 용이성, 지속력 등을 높였다.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도 에스테틱 사업에 속도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23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1567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0.8%, 12% 증가한 가운데, 필러 제품군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는 것이 시지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지바이오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위주의 수출에서 유럽,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 국가를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로 시지바이오는 지난 3월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 최고 에스테틱·항노화 학회인 'AMWC 2024'에 참여해 글로벌 미용성형 시장 선전에 나섰다. 시지바이오는 해당 행사에서 기업 핵심

제품인 실리프팅 시술용 폴리디옥사논(PDO) 봉합사 렉스, 성장인자를 히알루론산 필러에 접목한 차세대 스킨부스터 제품 등을 선보였다.

시지바이오는 최근 고기능성 스킨부스터 '트루다이브 RX PDRN' 제품군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국소 부위를 관리하는 패치 제품과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롤러 제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들은 연어 또는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성분인 폴리디옥사논보뉴클레오티드(PDRN), 작약 엑소솜, 네오랩S 등 고기능성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시지바이오는 피부 전문 클리닉에서 받는 고기능성 피부 관리를 집에서 손쉽게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를 정조준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브릿지에 따르면 국내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23억8000만 달러(3조2261억 원)에서 오는 2031년 81억8000만 달러(11조8800억 원)로 연평균 17.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신규서버 10곳추가 오픈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서비스 확장을 위해 신규 서버를 개설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로드나인'의 신규 서버를 2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로드나인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월드 '마레크' 및 10개의 서버를 추가로 공개한다.

로드나인은 지난달 12일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200만을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 15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신규 서버 증설로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로드나인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스마일게이트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유한양행, 유산균 '포켓부스터' 론칭

장건강·운동수행력 향상 동시에 높이뛰기 선수 부상혁 모델 선정

유한양행이 운동수행력과 장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이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포켓부스터'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포켓부스터'는 국내 최초의 운동수행능력 향상 유산균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TWK10'를 주성분으로 한다.

만 20~40세의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TWK10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성분 섭취



포켓부스터.

/유한양행

시 악력 증가, 혈중 젖산 감소, 혈중 암모니아 감소, 탈진 시까지 걸린 시간 증

/이청하 기자

가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의 설명이다. 또 유한양행은 '포켓부스터'는 보장균수 100억으로 배변 활동을 비롯한 장건강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포켓부스터' 제품 모델로는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의 높이뛰기 메달리스트인 부상혁 선수를 선정했다. 유한양행은 대회마다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한국 육상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부상혁 선수가 현대인의 활력을 높이는 포켓부스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세엠케이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

기흥점, 약 90평 규모 대형매장 조던 등 신제품·이월상품 다양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가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매장을 선보인다.

한세엠케이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에 '나이키키즈 바이 플레이키즈'(이하 나이키키즈) 체험형 매장을 새롭게 연다고 4일 밝혔다.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이번 나이키키즈 기흥점은 약 90평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 나이키 및 조던 키즈 라인의 신제품과 이월 상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던 23 저지 세트', '나이키 우븐 반바지' 등 의류를 포함해 나이키와 조던 키즈 제품군의 신발과 액세서리 상품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나이키키즈 매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체험 매장으로 기획됐다는 게 특징이다. 매장을 방문한 아이들은 오래 매달리기, 높이 뛰기, 제자리 뛰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직접 다양한 운동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한세엠케이 측의 설명이다.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매장 방문객은 내달 18일까지 매장에서 2개 품목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구매 고객 대상으로 나이키키즈 양말, 카드 지갑 등도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나이키키즈 매장에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한미약품, 의약품 처방약 매출 3년 연속 1위 CJ올리브영, 인천공항-명동 직통버스 운영

지난해 합산 매출 1조168억 달성

한미약품은 제약 업계에서 3년 연속 '원내·원의 처방 합산 매출' 1위라는 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와 아이큐비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미약품은 지난 2023년 원내·원의 처방 합산 매출 1조168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1년 원내·원의 처방 매출 8405억 원을 기록한 후, 3년간 원내·원의 처방 의약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원의 처방은 병의원이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조제한 것이고, 원내 처

방은 병원 내 약제과에서 조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원내·원의 처방 매출이 한미약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회사는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약 사업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처방 매출을 돌파했다.

또 고혈압치료제군 '아모잘탄패밀리'의 올해 누적 처방 매출은 1조3400여 억 원에 이른다. 아모잘탄패밀리의 시초가 된 2제 복합신약 '아모잘탄' 누적 매출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청하 기자

외국인 대상 무료 '올영 익스프레스'

CJ올리브영이 K뷰티와 K쇼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영 익스프레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올영 익스프레스는 인천 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하루 3회 편도로 운행하는 무료 버스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K 공항리무진'에서 운행하는 6701 노선을 활용하고, 올리브영 특정 매장 앞이 아닌 명동 입구에서 하차해 명동 상권 전반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과 명동을 잇는 올리브영 전용 버스 '올영 익스프레스'에 탑승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영 익스프레스를 통해 K뷰티를 체험하고 국내 대표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 다양한 K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